MEKONG TIMES

베한타임즈
VIETNAM-KOREA TIMES

Oct. 26
2026

12면



4일에 한 번 라면을 먹는 나라에서 불닭이 터진 이유



물을 쪼개면 연료가 된다 베트남이 그리는 2050년 수소 경제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흔한 원소다. 그런데 순수한 수소 기체는 자연에 거의 없다. 물(H_2O)이나 천연가스(CH_4) 같은 화합물 안에 묶여 있다. 이것을 꺼내는 방법에 따라 수소의 색깔이 달라진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들면 탄소가 나와 "회색수소"•"갈색수소"라고 부른다.…

4면



반도체 엔지니어 5만 명 10년 안에, 베트남 직업훈련 혁명의 시작

대만이 반도체 인력 10만 명을 키우는 데 30년이 걸렸다. 베트남은 그것을 10년 안에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9월 21일 레탄롱 부총리가 서명한 결정 제1017/QD-TTg호가 출발점이다. 반도체 인력 5만 명 양성•총 예산 약 26조 동(10억6,000만~10억8,000만 달러•한화 약 1조4,000억 원). …

10면



더 비싼 술이 더 많이 들어온다 베트남 수입 주류 51% 급증

베트남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술에 붙는 세금을 올렸다. 그런데 수입 주류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다. 큐앤미가 베트남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8월 베트남 주류 수입 총액이 5,670만 달러(한화 약 754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했다. …

13면

MEKONG TIMES

주소: _____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210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웹사이트: mekongtimes.net
이메일: jonggak7@gmail.com
광고문의: 085 4232 600

신한은행

사장님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금융은 신한이 책임 지겠습니다



실시간 입금안내

계좌 입금 즉시
스피커로 입금 내용 안내

사업용 계좌

사업용 입출금 계좌에
최대 연 4.5% 이자 제공

스마트 결제 POS

한국어 지원 POS 제공
및 최저 카드 수수료 혜택

매장관리 서비스

여러 매장을 SOL App에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

SOL 앱 다운로드
QR 스캔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이제 베트남 정부 공사 가장 싼 곳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 낙찰"

3대 법령이 바꾸는 베트남 공공 조달의 판

베트남에서 정부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민간투자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2026년 10월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정부가 조달・인프라 투자 전반을 뒤흔드는 두 개의 핵심 법령을 동시에 시행했다. 10년 이상 누적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녹색・첨단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담았다.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① 공공조달이란 무엇인가 - 베트남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

공공조달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베트남 정부가 도로•학교•병원•항만을 짓거나 컴퓨터•의약품•서비스를 살 때 누구에게 맡길지 고르는 과정이다.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이 과정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첫째, "가장 싼 곳"이 이기는 구조였다. 가격만 낮추면 품질이 나빠도 됐다. 둘째, 국제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도 외국 기업들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규칙들이 남아 있었다. 셋째, 종이로만 입찰하니 부정과 정보 비대칭이 생겼다. 이번 두 법령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치는 것이다.

② 결의안 374호(9월 30일 시행) - "약속한 문을 이제 진짜 연다"

결의안 374호(374/2026/ND-CP)는 국제 무역 협정과 연계된 정부 조달을 하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묶었다. 베트남이 이미 가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세 가지 협정에서 베트남이 약속한 조달 개방 의무를 처음으로 하나의 국내 법령으로 정리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베트남이 국제 협정에서 "우리 정부 조달 시장을 외국에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국내 규정이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결의안 374호가 이 간극을 메웠다. 이 법령에 따르면 특정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에서 협정 가입국 기업들이 내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 예정 금액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 이제 계약 기간 전체의 최대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 계약의 실제 가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한국 기업에게 직접 연관된 부분이 있다. 한국은 베트남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외에 별도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결의안 374호의 통합 프레임워크가 향후 한-베트남 조달 협력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결의안 374호가 정한 새로운 절차와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③ 결의안 377호(10월 1일 시행) - "녹색・첨단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결의안 377호(377/2026/ND-CP)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민간이 먼저 짓고 나중에 정부가 사용료로 돌려주는 방식)과 건설-이전(BT•짓고 토지로 대가를 받는 방식) 사업 전반을 뒤집었다. 기존 4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 대규모 법령이다. 핵심 변화가 세 가지다.

첫째, 녹색 금융•전략 기술•청정 기술 기업이 입찰 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지금까지 베트남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었다. 이제 같은 가격이라면 녹색 기술을 쓰거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유리해진다. 친환경 건설•스마트 교통•에너지 절약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 우위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입찰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PPP 사업 제안서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2027년 9월 1일부터는 국내 공개 입찰 대상 PPP 사업의 투자자 선정 전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면 정보 비대칭과 부정 입찰 여지도 줄어든다. 셋째, 투자자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 각 기업의 위반 이력•계약 이행 실적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과거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 입찰에서 불리해진다. 한번 좋은 실적을 쌓으면 다음 입찰에서 신뢰 자산이 된다.

기술 기업에 특별히 유리한 조항도 있다. 과학•기술•혁신 과제를 포함한 PPP 사업에서 해당 과제 부분에 국가 예산을 부분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혁신 기술을 보유했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 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④ 한국 기업에게 어떤 의미인가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번 법령 개혁이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기회와 주의 사항을 정리한다. 기회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다. 첫째, 녹색•첨단 기술 우대다. 한국의 스마트 교통•에너지 절약 건설•태양광•수처리 기술이 베트남 정부 조달 입찰에서 가격 이외의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 둘째, 온라인 입찰 전환이다. 디지털 입찰 시스템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인맥 기반 입찰에 강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술 PPP 지원이다. 첨단 기술을 포함한 PPP 사업에 국가 예산 일부 지원이 가능해져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의할 점도 있다. 결의안 377호 시행일(10월 1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 단계(승인 완료•입찰 진행 중•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새 법령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베트남에서 PPP•BT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은 반드시 현지 법무 자문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어떤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편집부 평가

"베트남 정부 공사는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 딴다." 이것이 이번 법령 개혁의 방향이다. 녹색 기술•전략 기술 우대•온라인 입찰•투자자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작동하면 베트남 공공조달 시장이 투명해지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 유리해진다. 한국은 CPTPP•유럽연합•영국 FT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아세안•한-베트남 무역 관계가 있다. 이번 법령 개혁이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먼저 이해하고 적응하는 기업이 베트남 인프라 시장의 다음 라운드에서 앞설 것이다.

[출처: Duane Morris Vietnam Law Blog "Vietnam Billion-Dollar Procurement Opportunity: Three Landmark Reforms — Decree 374/2026/ND-CP Sept 30 CPTPP EVFTA UKVFTA / Decree 377/2026/ND-CP Oct 1 PPP BT amends 4 decrees green clean strategic tech advantage" (2026.10.09) • Vietnam Briefing "Decree 377/2026/ND-CP PPP Rules: technology contracts online investor selection BT project valuation 4 implementing decrees amended" (2026.10) • VietnamPlus/VNS "PPP bidding online from 2027: Jan 1 proposals Sept 1 full investor selection National E-Procurement System national database investor violations compliance" (2026.10.15) • LuatVietnam.vn "Decree 377/2026/ND-CP full text Jan 2027 Stage 1 Sept 2027 Stage 2 state budget science tech PPP partial full funding" (2026.10)]

물을 쪼개면 연료가 된다 - 베트남이 그리는 2050년 수소 경제

결정 제165/QD-TTg호(2024.2.7)・2030년 10만~50만 톤・2050년 1,000만~2,000만 톤 목표 ・메콩 델타 4개 성 그린수소 프로젝트 동시 착공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흔한 원소다. 그런데 순수한 수소 기체는 자연에 거의 없다. 물(H_2O)이나 천연가스(CH_4) 같은 화합물 안에 묶여 있다. 이것을 꺼내는 방법에 따라 수소의 색깔이 달라진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워서 만들면 탄소가 나와 "회색수소"・"갈색수소"라고 부른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쪼개면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그린수소"다. 베트남이 지금 이 그린수소에 베팅하고 있다. 2024년 2월 총리 결정 제165호로 수소 에너지 국가 전략을 공식 선언했다. 2050년까지 연간 1,000만~2,0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해 국가 에너지의 약 10%를 수소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① 수소 에너지, 쉽게 이해하기 - 왜 차세대 연료인가

수소를 연료로 쓰면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 물뿐이다. 탄소가 없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철강•시멘트•화학•정유 산업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전기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고온 공정•장거리 선박•항공기 연료로도 쓸 수 있다. 세계 수소 위원회는 2050년 세계 수소 시장이 연간 2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지금 그린수소 생산 비용이 아직 비싸다는 것이다. 베트남석유연구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기존 회색수소의 1.3~2.1배다. 이 비용 격차를 좁히는 것이 그린수소 산업의 핵심 과제다.

베트남은 현재 회색수소를 연간 약 50만 톤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비료 제조(연간 31만6,000톤)•정유 공장(둥꽛 3만9,000톤•응이선 13만9,000톤)에 쓰인다. 그린수소는 아직 상업 생산이 없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린수소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가 풍부하다. 해안선이 3,260킬로미터로 해상 풍력 잠재력이 크고 일조량도 충분하다. 이것이 베트남이 그린수소 허브를 꿈꾸는 이유다.

② 베트남의 수소 국가 전략 - 2단계 목표

2024년 2월 7일 레반탄 총리가 서명한 결정 제165/QD-TTg호가 베트남 수소 에너지 발전 전략의 공식 출발점이다. 전략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와 탄소 포집 공정을 활용한 수소 생산량을 연간 10만~5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업 대규모 생산보다 기술 파악•시범 사업•인프라 기반 구축이 목표다. 2단계(2050년까지)는 연간 1,000만~2,000만 톤 생산 체계를 완성해 국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0%를 수소로 충당하는 것이다.

수소를 어디에 쓸 것인가도 전략에 담겼다. 첫째, 발전이다. 2050년까지 수소 발전 용량이 약 3만7,0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계획됐다.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에 수소를 섞어 태우는 방식(혼소)으로 시작한다. 둘째, 산업이다. 철강•시멘트•화학•정유 공장의 탈탄소화에 수소를 쓴다. 셋째, 수출이다. 베트남이 생산한 수소와 그린암모니아를 일본•한국•유럽에 수출하는 그림이다. 일본이 한국•덴마크와 함께 베트남 수소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베트남-일본 수소 협력 양해각서가 2024년에 체결됐다.

③ 메콩 델타가 그린수소 첫 번째 거점이 된 이유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 지역으로 지목한 메콩 델타 4개 성이 있다. 짜빈성•벤쩨성•박리에우성•띠엔지앙성이다. 이 지역들이 선택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태양광이 풍부하다. 메콩 델타는 연간 일조 시간이 길고 평지가 넓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유리하다. 둘째, 해안 풍력 자원이 있다. 메콩 델타 남부 해안선이 동해와 타이만을 모두 접하고 있어 풍력 발전 조건이 좋다. 셋째, 수출 인프라다. 메콩강이 바다로 나가는 지점에 항구가 있어 생산한 수소와 암모니아를 선박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앞서 나간 것이 짜빈성 그린수소 프로젝트다. 베트남 기업 그린솔루션그룹(TGS)이 2023년 3월 착공해 연간 2만4,000톤 생산 용량의 베트남 최초 메콩 델타 그린수소 시설을 짓고 있다. 총 투자액 3억2,770만 달러(한화 약 4,400억 원)이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금융을 지원한다. 2027년 완공 목표다. 중부 해안 빈딘성에서도 풀미투자그룹이 450~500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약 2만 톤 생산을 2026년에 시작하고 2035년까지 2,000메가와트•연간 16만 톤으로 확장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④ 목표는 크고 현실은 아직 초기다 - 솔직한 평가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수소 전략이 방향은 맞지만 아직 상업화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고 평가한다. 세 가지 도전이 있다. 첫째, 비용이다. 그린수소 생산 비용이 회색수소보다 1.3~2.1배 비싸다. 태양광•풍력 발전 비용이 더 낮아져야 그린수소가 경쟁력을 갖는다. 둘째, 규정이 없다. 투자 지침•인센티브•안전 기준•운반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셋째, 구매자가 없다. 수소를 만들어도 사줄 산업 고객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 전문가들은 "생산 먼저가 아니라 수요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기업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한국은 수소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차•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한화의 태양광-수소 연계 기술이 베트남에서 쓰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도 베트남 수소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규정 정비•인프라 구축•기술 이전 단계에서 한국의 경험이 베트남에 필요하다.

★ 편집부 평가

2050년 연간 1,000만~2,000만 톤. 베트남이 선언한 수소 생산 목표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연간 50만 톤인 회색수소 생산을 4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다. 메콩 델타의 태양광•남부 해안의 풍력•긴 해안선을 통한 수출 인프라가 베트남에는 있다. 지금은 짜빈성 3억2,770만 달러짜리 첫 번째 공장이 공사 중인 초기다. 이 첫 번째 공장이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베트남 수소 경제는 2026년 지금 막 첫 삽을 뜨고 있다.

[출처: GH2.org/ISA-GHIC "Vietnam hydrogen: Tra Vinh Green Hydrogen TGS 24,000MT/yr $327.7M 2yr Mekong Delta first facility March 2023" • Decision 165/QD-TTg Feb 7 2024 "100,000-500,000T/yr by 2030; 10-20M T/yr by 2050; ~10% final energy" (multiple legal sources) • VietnamNet "Binh Dinh Phu My 450-500MW 20,000T/yr 2026-2030 scale 2,000MW 160,000T/yr 2035" • SolarQuarter/SPGlobal "Tra Vinh Ben Tre Bac Lieu Tien Giang 4 Mekong Delta provinces MoIT selected" • VPI/MOEIT "current grey hydrogen 500,000T/yr fertilizer 316,000T Dung Quat 39,000T Nghi Son 139,000T" • VPI "green hydrogen cost 1.3-2.1x grey hydrogen" • CEI VinUni "Decision 165 100,000-500,000T 2030 10-20MT 2050 net zero alignment" (2026.09) • ESP.org.vn/Reccessary "demand before supply 6 priorities hydrogen development" (2026.09~10)]

오피스텔 법적 지위 재개정 소식에 화요일 부동산주가 폭발하면서 VN-Index가 2주 전 1,700포인트 붕괴 직전에서 이번 주 1,76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지시가 추가 호재로 작동했다



① 이번 주 증시 - 부동산주 폭발 • 금리 인하 호재 • 주간 +3.21%

이번 주(10.19~10.22) VN-Index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월요일(10.19) 1,689.84포인트로 −0.94%(−16.07포인트) 하락하며 한 주를 시작했다. 장 초반에는 오름세였지만 오후 들어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압박이 강해졌다. 장중 1,700포인트 지지선이 다시 무너졌다. 거래대금은 13조4,000억 동으로 전 거래일 대비 21.45% 늘었다. 시장 폭은 상승 162종목•하락 133종목•보합 75종목이었다.

화요일(10.20) 1,691.97포인트로 +0.13%(+2.13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낙폭이 크지 않아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방향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거래대금은 8조7,000억 동으로 전일 대비 줄었다. 수요일(10.21)이 이번 주 최대 하이라이트였다. 인민일보가 "부동산주가 급등하며 VN-Index가 거의 47포인트 치솟았다"고 표현한 날이다. 1,738.67포인트로 +2.76%(+46.70포인트) 급등했다. 거래대금이 809조 동으로 이번 주 최대였다. 촉발 요인이 명확하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숍하우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주택법•부동산사업법 재개정안을 심의한다는 소식(10.2)이 시장에 본격 반영됐다. 빈홈스•빈컴•노바랜드 등 부동산 대형주들이 동반 급등했다.

목요일(10.22) 오늘 1,760.63포인트로 +1.26%(+21.96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20개 은행에 수신금리 0.5%포인트 인하를 지시하고 14개 은행이 대출금리 1.5~2%포인트 인하를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동했다. 거래대금이 435조 동으로 수요일보다 줄었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됐다. 오피스텔 재개정 기대감과 금리 인하라는 두 가지 호재가 겹친 것이다.

주간 변화를 보면 지난주 마감(10.16•1,705.91포인트) 대비 이번 주 마감(10.22•1,760.63포인트)은 +3.21%다. 2주 전(10.15) 1,698포인트까지 밀렸던 지수가 이제 1,760포인트를 회복했다. 10월 1일(1,749.3포인트) 대비로도 +0.65%로 10월 전체 손실을 거의 만회했다. 1년 기준으로는 +2.79% 수준이다.

② 이번 주 금값 - 4일 연속 하락 • 국제 금값 약세 • 이번 주 1,300만 동 빠져

SJC 금값이 이번 주 4거래일 내내 하락했다. 월요일(10.19) 오전까지 매입 1억4,060만 동•매도 1억4,360만 동을 유지했다. 오후 들어 국제 금값 하락과 함께 50만 동 내려 매입 1억4,010만 동•매도 1억4,310만 동으로 마감했다. 수요일(10.21) 국제 금값이 4,114달러(약 543만 원/온스)까지 떨어지면서 SJC도 50만 동 추가 하락해 매입 1억3,960만 동•매도 1억4,260만 동이 됐다. 목요일(10.22) 오전 국제 금값이 4,140달러(약 547만 원/온스)로 소폭 회복됐지만 SJC는 30만 동 더 내려 매입 1억3,930만 동•매도 1억4,230만 동으로 시작했다. 국내 금값 SJC 매도 기준으로 10월 12일(1억4,430만 동) 대비 이번 주 목요일(1억4,230만 동)까지 약 200만 동 빠졌다.

국제 금값은 10월 고점(4,203달러)에서 4,114~4,140달러대로 약 60~90달러 후퇴했다. 달러 강세•미국 금리 전망 불확실성이 금값 약세 배경이다. 그러나 원화 강세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화 기준 국제 금값 하락 폭이 달러 기준보다 더 크다. 10월 들어 원화가 1,342원에서 1,320원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로 환산한 국제 금값 낙폭이 커졌다.

③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한 두 가지 - 부동산 재개정 • 금리 인하

첫째, 부동산 법령 재개정 기대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숍하우스를 "주거 및 숙박 목적 주택"으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재개정안을 심의 중이라는 소식이 수요일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다. 오피스텔 핑크북 발급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부동산주 전반에 퍼졌다. 빈홈스•빈컴•노바랜드가 대표 수혜주였다. 다만 최종 통과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둘째,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지시다. 오늘 20개 은행 수신금리 0.5%포인트•14개 은행 대출금리 1.5~2%포인트 인하 발표가 오후 장에 호재로 작동했다. 금리가 내리면 예금 매력이 줄고 주식•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2027년 10%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금융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 편집부 평가

2주 전 1,700포인트 붕괴 직전까지 밀렸던 지수가 이번 주 1,760포인트를 넘었다. 부동산 재개정 기대감과 금리 인하라는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들어왔다. 기술적으로는 반등이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제 관건은 다음 주다. 오피스텔 재개정 최종 통과 여부•미국 무역 협정 서명 시점•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가 1,76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굳힐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출처: Investing.com "VNI Oct19 1,689.84 -0.94%; Oct20 1,691.97 +0.13%; Oct21 1,738.67 +2.76%; Oct22 1,760.63 +1.26%" • NhanDan "VN-Index surges nearly 47 points as property stocks soar Oct 21; up 1.26% Oct 22" • JapanSec "Oct19 VN-Index -0.94% 1,689.84 breadth 162adv 133dec 75unch turnover VND13.4T +21.45%" • Vietnam.vn "SJC gold Oct19 140.6-143.6M→140.1-143.1M -500K; Oct21 139.6-142.6M -500K; Oct22 139.3-142.3M -300K" • Vietnam.vn "International gold Oct21 4,114USD/oz 4,125USD; Oct22 4,140USD/oz" • MekongMemo Vietnam "State Bank Orders Deposit Rate Cuts 0.5pp nearly 20 banks; 14 lending -1.5-2pp Oct22" • NhanDan "officetel condotel resort villa shophouse legal status amendment National Assembly Oct2"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르네상스
에서
인상주의
까지

Open . 2026. October. 01

2027. October. 01

SAFAMA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을 엽니다

사파마 힐링캠프 , Tel 0924 836 445, Website : safamacamp.com

주소 : Hamlet 4, Toc Tien Commune, Phu My Town, BRVT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Danh sách các trường phái hội họa triển lãm tranh sao chép danh họa
힐링캠프 명화 레플리카 화풍별 목록

			YEARS	QUANTITY	PERSON
회화 양식	ARTISTIC STYLE IN PAINTING	PHONG CÁCH HỘI HỌA	제작년도	작품 수	화가 인수
초기르네상스	EARLY RENAISSANCE	PHỤC HƯNG SƠ KỲ	1400	14	12
르네상스	RENAISSANCE	PHỤC HƯNG	1500	20	9
매너리즘	MANERISM	CHỦ NGHĨA CÁCH TÂN	1550	4	3
바로크	BAROQUE	BAROQUE	1600	15	8
로코코	ROCOCO	ROCOCO	1700	12	3
고전주의	NEOCLASSICISM	CHỦ NGHĨA TÂN CỔ ĐIỂN	1750	10	2
낭만주의	ROMANTICISM	CHỦ NGHĨA LÃNG MẠN	1800	13	7
사실주의	REALISM	CHỦ NGHĨA HIỆN THỰC	1850	23	9
인상주의	IMPRESSIONISM	CHỦ NGHĨA ẤN TƯỢNG	1900	116	16
입체파 현대미술	MODERN, CONTEMPORARY ART	NGHỆ THUẬT HIỆN ĐẠI, ĐƯƠNG ĐẠI	2000	11	3
				238 장	72 명

Danh sách họa sĩ triển lãm tranh sao chép danh họa 힐링캠프 명화 레플리카 (복제) 전시전 작가 목록

TÊN HỌA SĨ	TRANH	TÊN HỌA SĨ	TRANH	TÊN HỌA SĨ	TRANH
Adolphe William Bouguereau	1	Hans Holbein the Younger	1	Paolo Veronese	2
Agnolo Bronzino	2	Henri Rousseau	1	Park Soo-keon	1
Albrecht Durer	1	Iiya Yefimovich Rep	1	Parmigianino	1
Alfred Sisley	2	Jacopo da Pontormo	1	Paul Cézanne	3
Ambrogio Lorenzetti	1	Hieronymus Bosch	2	Paul Gauguin	7
Amedeo Modigliani	1	Jacques-Louis David	7	Peter Paul Rubens	1
Andrea Mantegna	1	Jan van Eyck	1	Pierre- Auguste Renoir	15
Camille Pissaro	1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2	Pieter Bruegel the Elder	4
Caspar David Friedrich	2	Jean Baptiste Simeon Chardin	1	Pole Cezanne	1
Claude Lorrain	1	Jean- François Millet	14	Raffaello Sanzio	1
Claude Monet	38	Jean-Antoine Watteau	2	Rembrandt van Rijn	5
Diego Velázquez	1	Jean-Honoré Fragonard	3	Rosso Fiorentino	1
Edgar Degas	2	Johannes Vermeer	3	Salvador Dalí	1
Edouard Manet	1	John Constable	2	Sanzio Raffaello	1
Edvard Munch	2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	Sandro Botticelli	2
El Greco	3	Le Carvaggio	2	Simone Martini	1
Eugène Delacroix	3	Katsushika Hokusai	1	Théodore Géricault	2
Francisco Goya	1	Leonardo da Vinci	3	Tintoretto	2
Francois Boucher	4	Limbourg brothers	1	Tommaso di ser Giovanni Masaccio	2
Georges Seurat	2	Mary Cassatt	1	Unknown	1
Giotto di Bondone	1	Matthias Grunewald	1	Vecellio Tiziano	2
Giuseppe Arcimboldo	2	Michelangelo Buonarroti	2	Vincent van Gogh	53
Gustav Klimt	2	Narcisse Virgilio Díaz de la Peña	1	Willem Claesz Heda	1
Gustave Caillebotte	1	Nicolas Poussin	2	William Hogarth	1
Gustave Courbet	2	Pablo Picasso	2	Winslow Homer	1
Henri Matisse	2		58		112
	80				250

SAFAMA HEALING CAMP

라면은 아끼고 금은 더 산다 - 베트남 소비자가 보내는 엇갈린 신호

1~8월 소매 판매 생필품 실질 성장 약 +1% • 전자제품 • 귀금속 판매 성장 +20~50%



베트남 경제가 3분기 9.95% 성장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내놓는 동안 슈퍼마켓 진열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라면 • 세제 • 유제품 같은 생활필수품은 더 싸고 용량이 큰 제품으로 갈아타면서 전자제품과 귀금속에는 수십 퍼센트 더 지출하고 있다. 닐슨IQ와 켄노(Kenno)가 2026년 상반기 베트남 소비자 패널을 분석한 결과 생활필수품 실질 수량 성장이 약 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자제품과 귀금속은 20~50% 성장했다. 소득이 늘었는데 지갑은 더 조심스럽게 열린다. 그런데 그 지갑을 여는 순간 프리미엄을 선택한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보내는 엇갈린 신호를 읽어본다.

① 숫자로 보는 역설 - 전체는 성장하는데 생필품은 제자리

2026년 1~8월 베트남 전체 소매 판매가 5,235조5,000억 동(약 2,045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성장했다.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질 성장률이 7.6%다. 9월도 전년 동월 대비 14.1% 성장하며 흐름을 이었다. 숫자만 보면 베트남 소비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세분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닐슨IQ가 2026년 1~5월 기준으로 분석한 생활필수품(FMCG) 성장률이 4.3%였는데 이 중 가격 인상이 3.6%포인트를 차지했다. 실제로 팔린 수량 기준 성장은 약 1%에 그쳤다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싸진 것을 어쩔 수 없이 사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올랐다. 씨미고(Cimigo)에 따르면 2026년 2월 이후 휘발유(RON 95) 가격이 22%•경유 가격이 43% 올랐다. 에너지 비용은 식품•물류•생산 원가 전반에 파급된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압박이 통계 물가보다 훨씬 크다. 씨미고가 추적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 압박을 그대로 보여준다. 2025년까지 60%대를 유지하던 긍정 소비자 심리가 2026년 2분기에 41%까지 급락했다. 3분기에 54%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에 못 미친다.

② 생필품은 아끼는데 프리미엄은 왜 더 잘 팔리는가

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고가 제품 카테고리가 폭발했다. 전자제품과 귀금속이 20~50% 성장했다. 프리미엄 식품도 마찬가지다. 마산그룹의 프리미엄 라면 브랜드 오마치(Omachi)가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며 매출총이익률 50% 이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다. 왜 일반 라면은 아끼면서 프리미엄 라면은 더 사는가.

인베스트베트남(InvestVietnam)과 씨미고가 공통으로 분석한 이유가 있다. "선택적 업그레이드(Selective Up-trading)" 현상이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일상의 지출을 통제하는 대신 건강•안전•감성적으로 중요한 카테고리에서는 프리미엄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매일 먹는 기본 식품은 더 큰 용량의 저렴한 제품으로 바꾸지만 자녀를 위한 영양 식품•본인의 건강기능식품•특별한 날의 선물•고장난 전자제품 교체에서는 좋은 것을 산다. 닐슨IQ는 이를 "소비의 양극화"라고 표현했다. 중간 가격대가 압박을 받고 저가와 프리미엄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있다. 경험 소비로의 이동이다. 씨미고 Q1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설(뗏) 시즌 소비가 물건에서 서비스와 경험으로 바뀌었다. 여행•레저•외식•편의 서비스 지출이 상품 지출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1~8월 숙박•음식 서비스 매출이 16.4%•여행 서비스가 17.1% 성장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소유보다 경험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③ 누가 프리미엄을 사는가 - 월 76만 원이 기준선

씨미고 소비자 프로파일에 따르면 월소득 1,500만 동(약 76만 원•592달러) 이상 가구가 1,580만 가구(전체 가구의 56.2%)에 달한다. 약 5,620만 명이 이 소득 계층에 속한다. 이들이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의 핵심 구동력이다. 도시 소비자는 외식과 프리미엄 선호가 강하고 농촌 소비자는 필수 소비에 집중하는 구조가 뚜렷하다. 중간 소득층(월 750만~1,500만 동•약 38만~76만 원)은 "균형 소비와 가치 최적화" 패턴을 보인다. 좋은 것을 사고 싶지만 꼭 필요한 곳에만 쓴다는 것이다.

소비자 금융이 이 소비 행태를 증폭시킨다. 씨미고와 인베스트베트남 공통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금융이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26%•소매 판매의 58%를 담당한다. 무이자 할부•후불 결제가 당장 현금이 없어도 프리미엄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든다. 전자제품 20~50% 성장의 배경에 할부 결제 확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④ 한국 브랜드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소비 역설은 한국 브랜드들에게 명확한 전략 신호를 준다. 중간 가격대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중간 가격대를 가장 먼저 포기하고 저가 현지 브랜드 아니면 프리미엄 외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한국 브랜드가 "중간 가격•중간 품질"로 포지셔닝하면 가장 경쟁하기 어려운 구간에 놓인다. 반대로 "건강•안전•한국산 신뢰도"를 앞세운 프리미엄 포지셔닝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홍삼•건강기능식품•프리미엄 스킨케어•고급 생활용품이 이 구간에 속한다.

채널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씨미고는 "이제 베트남에서 전통 소매•현대 소매•전자상거래•라이브스트리밍•소셜커머스가 동시에 경쟁하는 구조적 단절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에서는 가격 정보가 즉시 비교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체험이 구매를 유도한다. 두 채널을 동시에 잘 운영하는 것이 지금 베트남 시장의 필수 조건이다.

★ 편집부 평가

9.95% 성장이라는 헤드라인 뒤에서 베트남 소비자들은 조용히 계산하고 있다. 연료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동안 불필요한 것은 아끼고 꼭 필요하거나 특별한 것에 집중한다. 이것이 "성장하는 경제의 신중한 소비자"가 보내는 신호다. 중간 가격대의 압박과 프리미엄의 성장이라는 이 구조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더 이상 단순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고르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출처: NSO/VNA "1-8M 2026 retail sales VND5,235.5T +13.3% YoY VND3,947.6T goods +12.8% accommodation +16.4% travel +17.1%" (2026.09.04) • TradingEconomics/Eulerpool "Sep 2026 retail sales +14.1% YoY" • Kenno/NIQ/HSC "1-5M FMCG +4.3% price 3.6pp volume +1% electronics jewelry +20-50% Omachi 50%+ gross margin double-digit growth" (Emerging Vietnam 2026 panel) • Cimigo "Consumer Outlook 2027 Oct14: Q1 53% Q2 41% Q3 54% confidence RON95 +22% diesel +43% since Feb 2026 selective up-trading experience over ownership" (2026.10.14) • InvestVietnam "2026 trading down commoditized trading up health safety emotional premium consumer finance 26% GDP 58% retail" • Cimigo Consumer Profiles "1,580万 households above VND15M/month 56.2% ABCD class 56.2M people"]

11년 만의 대개혁 후 2년 - 부동산 법령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토지법 제31/2024/QH15호 • 주택법 제27/2023/QH15호 •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 2024년 8월 1일 동시 시행 • 시장 가격 기반 토지 평가 • 선납금 5% 상한 • 재외동포 동등 권리 • 2026년 10월 재개정 심의 돌입



2024년 8월 1일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다. 11년간 베트남 땅을 지배하던 2013년 토지법이 폐지되고 새 토지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도 함께 발효됐다. 원래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국회가 2024년 6월 29일 5개월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회 표결 결과가 469명 중 404명 찬성이었다. 시장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이 3대 법령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 무엇이 바뀌었는지 • 그리고 왜 벌써 재개정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① 3대 법령이 바꾼 것 - 핵심 5가지를 쉽게

첫째, 땅값 책정 방식이 바뀌었다. 토지법 2024(제31/2024/QH15호)의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는 정부가 5년마다 토지 가격 기준표를 만들어 실제 시장 가격과 크게 달랐다. 새 법은 이 고정 기준표를 폐지하고 시장 가격에 기반한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토지 가격 목록도 5년마다 개정에서 매년 개정으로 바뀌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첫 번째 연간 토지 가격 목록이 시행됐다. 이 변화로 토지 보상금이 현실화되고 세금 기준도 바뀌었다.

둘째, 분양 전 선납금 상한이 생겼다. 기존에는 완공 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발사가 계약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다. 분양 사기•자금 유용 사건이 잇따른 이유였다. 새 법은 분양 계약 시 선납금을 계약 금액의 5%로 제한했다. 임대–구매 방식의 미래 부동산 선납금도 50% 상한이 생겼다. 셋째, 재외동포(비엣끼에우) 권리가 확대됐다. 베트남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가 국내 시민과 동등한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됐다. 기존에는 친척 명의를 빌려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다.

넷째, 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가 허용됐다. 주택법 2023(제27/2023/QH15호)이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베트남인에게만 팔 수 있었다. 한국 교민이 보유한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이제 명확히 허용된다. 다섯째, 상업 중재가 토지 분쟁을 다룰 수 있게 됐다. 토지법 2024 제236조 5항은 상업 중재(베트남국제상사중재원 등)가 토지 관련 상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기존에는 법원과 인민위원회만 토지 분쟁을 다룰 수 있었다.

②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 기대와 현실 사이

법령 시행 이후 2년간 시장 반응은 기대보다 복잡했다. 긍정적인 신호가 먼저 나왔다. 하노이 아파트 신규 공급이 2026년 상반기에 5년 만에 최대치인 1만6,600가구를 기록했다. 기존에 법적 불확실성으로 묶여 있던 프로젝트들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케이비알이는 하노이 2026년 전체 신규 분양이 3만9,000가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6년 2분기 기준 호찌민시 사무실 시장 전체 면적이 약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점유율이 약 90%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다. 시장 가격 기반 토지 평가 도입으로 토지 보상 비용이 올랐다. 개발사들이 프로젝트 추진을 주저하는 원인이 됐다. 호찌민시 고급 빌라•타운하우스 평균 1차 가격이 2026년 2분기 기준 제곱미터당 약 2억1,600만 동으로 전분기 대비 3% 하락•전년 대비 29.5% 급락했다. 아파트•토지•빌라 가격이 동시에 조정을 받는 동안 산업용 부동산 임대료만 오르는 양극화도 심화됐다. 전국 평균 호가는 2025년 3~4분기 제곱미터당 101만 동에서 2026년 3분기 86만 동으로 15% 하락했다.

③ 벌써 재개정 - 2026년 10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돌입

2026년 10월 2일 국회 상임위원회 7차 회기에서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시행 2년 만에 재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리 손을 대는가.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규정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많은 새 조항이 사회•국가 관리•생산•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으로 정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개정 핵심 내용이 세 가지다. 첫째, 콘도텔•리조트빌라•오피스텔•숍하우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수십만 채가 법적 회색지대에 있는 이 부동산 유형들을 "주거 및 숙박 목적 주택"이라는 새 범주로 부동산사업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핑크북(소유권 증서) 문제 해결의 전 단계다. 둘째, 투자•사업 조건을 간소화한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개사 자격증 보유 인원 요건이 완화된다. 거래소•중개사•관리자•컨설턴트 등록 교육 인증 요건도 줄어든다. 셋째, 미분양 부동산 임대–구매 계약에 선납금 조항을 명확히 도입한다. 상임위원회는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며 최종 통과 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④ 한국인 •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외국인 간 부동산 거래 허용은 한국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다. 호찌민시•하노이에 아파트를 보유한 한국인이 매도할 때 이제 다른 한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직접 팔 수 있다. 상업 중재 토지 분쟁 관할권 인정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하다. 법원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베트남국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오피스텔 핑크북 재개정 논의는 진행 중이다. 국회 통과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한인들은 재개정 법령 최종 통과 여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 편집부 평가

3대 법령은 방향은 맞다. 시장 가격 기반 토지 평가•선납금 상한•재외동포 권리 확대•외국인 간 거래 허용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성숙해지는 데 필요한 변화들이다. 그러나 법이 시장보다 빨리 달렸다. 시행 2년도 안 돼 재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마찰이 생겼다는 신호다. 콘도텔•오피스텔의 법적 지위 문제처럼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한 모든 외국인이 알아야 한다.

[출처: VietnamLawMagazine/VietnamPlus "NA passes early force 3 laws Aug 1 2024 469 voted 404 yes 5M ahead of Jan 2025" (2024.6.29) • AllenGledhill/Lexology "Land Law 31/2024/QH15 Housing 27/2023 RETL 29/2023 Aug 1 Decrees 102 103" • EZLaw/HermanHenry "5% deposit cap off-plan 50% lease-purchase foreign-to-foreign annual price list from Jan 2026" • Rumavi 2026 "Land Law viet kieu equal rights foreigners sell to foreigners Housing Law 27/2023" • VietnamNews "NA Standing Committee 7th session Oct 2 2026 draft revised Housing Law Real Estate Business Law condotel officetel resort villa shophouse broker conditions simplified" (2026.10.02) • ConventusLaw "Draft RETL 2026 condotel officetel resort villa shophouse residential accommodation housing category lease-purchase" (2026.09.03) • GlobalPropertyGuide "CBRE Hanoi 16,600 new apartments H1 2026 five-year high 39,000 full year forecast villas VND216M/sqm -29.5% YoY" (2026.08) • Realtique "Vietnam national asking price VND101M Q3-Q4 2025 VND86M Q3 2026 -15%" (2026.10)]

반도체 엔지니어 5만 명 10년 안에, 베트남 직업훈련 혁명의 시작

제1017/QD결정 -TTg호(2024.9.21)・5만 명, 인공지능 결정 제1528호(2026.8.11)



대만이 반도체 인력 10만 명을 키우는 데 30년이 걸렸다. 베트남은 그것을 10년 안에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9월 21일 레탄롱 부총리가 서명한 결정 제1017/QD-TTg호가 출발점이다. 반도체 인력 5만 명 양성・총 예산 약 26조 동(10억6,000만~10억8,000만 달러・한화 약 1조4,000억 원). 이어 2026년 8월에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결정 제1528호가 나왔다. 2030년까지 기초 인공지능 전문 인력 5만 명을 키운다. 베트남이 조립・생산 기지에서 설계・기술 기지로 올라서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가 시작됐다.

① 왜 지금인가 -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만든 기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안전한 공급망 거점"으로 베트남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인텔이 호찌민시 공장에서 전 세계 인텔 반도체 패키징의 약 40%를 맡는다. 이미 베트남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고리다. 그러나 지금은 조립과 패키징 단계에만 있다. 베트남이 원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다. 칩 설계•연구개발•핵심 소재 생산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사람이다.

2026년 6월 8일 당 중앙위원회 결의 제10-NQ/TW호가 나왔다. 베트남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반도체 정책 문서다. 2026~2030년 외국인 직접투자 등록 자본 2,000억~3,000억 달러 유치 목표가 담겼다. 세계 3대 기술 기업이 베트남에 본사 또는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과학기술 예산을 국가 예산의 3~4%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② 반도체 인력 5만 명 계획 - 결정 제1017호가 정한 세부 목표

결정 제1017/QD-TTg호는 2030년까지 반도체 관련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5만 명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세부 구성이 있다. 박사 500명•석사 7,500명•학사 및 엔지니어 4만2,000명이다. 이 중 인공지능 전문가가 5,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 수준 인증을 받은 반도체 전문 강사가 1,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예산은 약 26조 동(10억6,000만~10억8,000만 달러•한화 약 1조4,000억 원)이다. 이 중 국가 예산이 17조 동(6억6,900만 달러•한화 약 8,902억 원)이며 나머지는 기업과 민간에서 분담한다.

인프라 투자도 구체적이다. 국가혁신센터•하노이국립대학교•호찌민국립대학교•다낭시에 4개 국가급 반도체 공동 실험실을 짓는다. 전국 18개 공립 대학에 표준 반도체 실험실을 각각 800억 동씩 지원해 구축한다. 칩 시제품 제작 국가 지원 센터도 2026~2027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베트남에 약 7,000명의 훈련된 반도체 엔지니어가 있다. 2030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리려면 연간 7,000명 이상을 새로 배출해야 한다.

③ 인공지능 인력 결정 제1528호 - 1,000만 명이 인공지능을 쓸 줄 알게 한다

2026년 8월 11일 레티엔차우 부총리가 결정 제1528/QD-TTg호에 서명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인력 양성 국가 프로그램이다. 목표가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기초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근로자 1,000만 명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인공지능 도구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둘째, 대학 수준 인공지능 전문 인력 5만 명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핵심 전문가 1,500명이다. 세계 수준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 수 있는 인재다. 이를 위해 전국에 10개 이상 인공지능 훈련 거점과 25개 이상 대학 허브를 만든다. 인공지능 전문가에게는 개인소득세 5년 면제 혜택도 준다.

호찌민시는 한 발 더 나갔다.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직업 훈련에 직업 중•고등 수준은 100%•전문대학은 70%•대학은 50%의 교육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원을 반도체•인공지능 과정에 보내면 실제 납부한 수업료의 절반을 돌려준다.

④ 한국 기업・대학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한국은 이미 베트남 직업훈련 혁명의 핵심 파트너다. 삼성이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하노이국립대학교와 반도체 커리큘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3월 경북대학교가 FPT대학교에 한국 대학 최초로 해외 커리큘럼 프랜차이즈를 설치했다. 한국어•한국 기술•한국 자격증을 함께 가르치는 모델이다. 이것이 단순한 유학 협력을 넘어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교육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기업 훈련 보조금도 활용 기회다. 시행령 제182호에 따라 인공지능•반도체•첨단 제조 분야 고기술 기업으로 등록하면 직원 교육비의 50%를 정부에서 돌려받는다. 직원 1인당 연간 1억 동 한도다. 베트남에 생산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이 직원 반도체•인공지능 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 편집부 평가

대만이 30년에 걸쳐 만든 것을 10년 안에 해내겠다는 계획은 분명 야심차다. 현실적 도전도 있다. 현재 7,000명인 반도체 엔지니어를 연간 7,000명 이상씩 새로 배출하려면 교수진•시설•기업 파트너십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맞다. 조립에서 설계로•부품에서 완성품으로•노동에서 지식으로.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니라 기술 국가로 도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가 교육이다. 그 교육에 한국 기업과 대학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열리고 있다.

[출처: VIR "Vietnam commits USD1.08B train 50,000 semiconductor engineers 2030 AI expertise 5,000 1,300 lecturers" (2024.04) • VietnamNews "26 trillion VND 500 PhD 7,500 Masters 42,000 engineers 4 national labs 18 university labs NIC VNU HCMCNU Danang" • Decision 1017/QD-TTg "Le Thanh Long Sep 21 2024 semiconductor HRD programme 2030 2050" (LuatVietnam) • Decision 1018/QD-TTg "semiconductor strategy revenue USD25B 2030 50,000 engineers 100,000 2030-2040" (VietnamPlus) • CipherProjects/VIR "Decision 1528/QD-TTg Aug 11 2026 Le Tien Chau 10M basic AI 50,000 specialists 1,500 core 10+ hubs 25+ universities personal income tax 5yr exempt" • SubStack SolarKitties "Resolution 10-NQ/TW June 8 2026 USD200-300B FDI 3 world tech corp HQ R&D S&T 3-4% budget" • ICEF Monitor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irst Korean university franchise FPT University Vietnam March 2026" (2026.09) • Vietnam.vn "HCMC semiconductor AI vocational 100% college 70% university 50% tuition support Oct 2026" • PertamaPartners "Decree 182 high-tech 50% reimbursement VND100M cap AI semiconductor automation cybersecurity"]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겉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4일에 한 번 라면을 먹는 나라에서 불닭이 터진 이유

매운 불닭이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통해 틱톡으로 전파되다





베트남 사람들은 라면을 아침으로도 먹고 점심으로도 먹고 저녁으로도 먹는다.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WINA) 2024년 공식 집계에 따르면 베트남이 한 해 81억3,700만 개를 소비했다. 1인당 81개로 세계에서 가장 자주 라면을 먹는 나라다. 4일에 한 번꼴이다. 한국이 79개로 2위다. 베트남이 2021년 한국을 추월한 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라면 공화국에 2014년 유튜브에서 시작된 도전 영상 하나가 불을 질렀다. "파이어 누들 챌린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틱톡을 타고 베트남 젊은이들의 식탁으로 들어왔다. 왜 이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에서 한국 라면이 터졌는가.

①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자주 먹는 나라 - 베트남 시장 지형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 집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4년 기준 중국•홍콩(438억 개)•인도네시아(147억 개)•인도(83억 개)에 이어 세계 4위 소비국이다. 2021년 85억5,700만 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81억2,700만 개로 소폭 줄었다가 2024년 81억3,700만 개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5년 수치는 세계인스턴트라면협회가 2026년 10월 13일 수정 발표한 기준으로 74억5,600만 개다. 총량 기준 세계 4위이지만 1인당 소비는 여전히 세계 1위다.

베트남 라면 시장은 약 50개 기업이 경쟁하는 치열한 전장이다. RetailData 기준 에이스쿡(일본계 베트남 법인)이 35.4%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에이스쿡의 국민 라면 하오하오는 1995년 출시 이래 30년 가까이 베트남 중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2위는 마산컨슈머(27.9%)다. 마산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마치는 프리미엄 라면 시장의 45%를 차지하며 대형마트•편의점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5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위 유니벤(12.2%)•4위 아시아푸드(8%)가 뒤를 따른다.

베트남 라면 시장의 특성이 있다. 가격이 약 1만 동(약 500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쌀국수 맛•새우 맛•매운 신맛 조합이 가장 선호된다. 탄력 있는 면발을 좋아해 일본식 부드러운 면이 아닌 쫄깃한 면이 주류다. 베트남 유일의 특성으로 밀 면 대신 쌀 면(쌀국수 라면)을 쓰는 제품도 많다.

② 왜 불닭이 베트남에서 터졌는가 - 세 가지 이유

첫째,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베트남 요리는 칠리•레몬그라스•라임을 기본으로 하는 매운맛•신맛•단맛의 복합 구조다. 불닭볶음면이 처음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이 정도 매운 맛이면 도전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불닭의 강렬한 매운맛이 자극적인 도전 거리로 다가왔다. 이미 매운 것에 익숙한 베트남인들이 "이것도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했다.

둘째, 틱톡이 결정적이었다. 2014년 유튜브에서 시작된 파이어 누들 챌린지는 유튜브에만 100만 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올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틱톡으로 옮겨온 뒤 더 빠르게 퍼졌다. 베트남은 틱톡 사용자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친구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불닭을 먹는 영상•베트남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조리법으로 불닭을 변형하는 영상이 쏟아졌다. "먹어봤냐"는 질문이 또래 사이의 대화 주제가 됐다.

셋째, 한류가 불닭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입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불닭을 먹는 장면이 퍼졌다. 한국 드라마•영화에 불닭이 등장하면서 "한국 아이돌이 먹는 라면"이 됐다. 가격이 일반 베트남 라면보다 비싸지만 "한국 제품이니까"라는 프리미엄 인식이 생겼다. 인베스트베트남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들이 건강•안전•감성적으로 중요한 카테고리에서는 프리미엄을 선택하는 "선택적 업그레이드" 현상과도 맞아떨어졌다.

③ 불닭이 삼양식품을 어떻게 바꿨는가

삼양식품은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2014년 유튜브 챌린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못 먹을 만큼 매운 것"이 오히려 구매 이유가 됐다. 2024년 삼양식품 매출이 약 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5%다. 2015년에 해외 매출이 전체의 1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불닭 누적 판매가 2025년 상반기 기준 80억 개에 달한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2025년 2월 약 41억5,000만 달러(한화 약 5조5,000억 원)로 올랐다. 2024년 1월 약 12억 달러에서 1년 만에 3배가 됐다.

삼양식품의 전략이 독특하다. "단일 브랜드 집중"이다. 불닭 하나에 모든 것을 건다. 오리지널•까르보나라•짜장•치즈•핵불닭•3배 매운맛 등 불닭 라인 안에서 다양한 맛으로 확장하되 브랜드는 불닭 하나로 유지한다. 2026년 4월에는 불닭 스위시(Swicy•달콤하고 매운) 라인을 새로 출시했다.

④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프리미엄과 건강 사이

베트남 라면 시장은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프리미엄화가 진행된다. 오마치•불닭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이 높아도 팔린다. 마산의 프리미엄 소비 성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쪽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베트남 특별소비세법이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했다. 나트륨•인공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라면"을 원하는 수요가 생기고 있다. 한국 라면 브랜드들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다. 불닭의 챌린지 열풍이 식었을 때도 소비자가 계속 사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 편집부 평가

4일에 한 번 라면을 먹는 나라에서 라면 하나가 더 터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에이스쿡 하오하오는 30년을 버텼고 마산 오마치는 프리미엄을 만들었다. 불닭은 맛이 아니라 문화로 들어갔다. 도전•한류•틱톡이라는 세 가지 엔진이 돌아가는 동안 불닭은 팔렸다. 지금도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라면을 넘어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 전반이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출처: WINA "Demand Rankings 2021-2025: Vietnam 8,557/8,480/8,127/8,137/7,456M servings 4th global "•WINA Global Top 15 "2024 China/HK 43.8B Indonesia 14.7B India 8.3B Vietnam 8.14B Japan 5.9B" (updated 2026.10.13) • VOV "Vietnam 8.231B 2025 4th global 80-81 packs per capita 1st" (2026.09) • VnExpress "81 packs per person 2024 world 1st South Korea 2nd 79" • RetailData/VietnamCredit "Acecook 35.4% Masan 27.9% Uniben 12.2% Asia Food 8%" • Kenno/NIQ "Omachi double-digit growth 50%+ gross margin premium 45% high-end" • Wikipedia Samyang Foods "revenue doubled 2022-2025 approx USD1.5B 2025 Buldak viral Fire Noodle Challenge" • Wikipedia Buldak Ramen "8B cumulative H1 2025 80% overseas 100+ countries 2012 launch" • ByteBridge/KoreaInvestInsights "2024 overseas 75% revenue USD1.73T KRW +45% YoY market cap USD4.15B Feb2025 Gen Z SEA Vietnam Indonesia Philippines high-growth" • Gostar VN "swicy trend Vietnam spicy flavor profile familiar 2026 clean label"]

더 비싼 술이 더 많이 들어온다 - 베트남 수입 주류 51% 급증

주류세 올렸는데 1~8월 수입 주류 5,670만 달러 • +51% • 와인 금액 +40% 증가



베트남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술에 붙는 세금을 올렸다. 그런데 수입 주류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다. 큐앤미가 베트남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8월 베트남 주류 수입 총액이 5,670만 달러(한화 약 754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1% 급증했다.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읽으면 틀린다. 51% 금액 증가가 51% 소비 증가를 뜻하지 않는다. 와인 수입 금액이 40% 올랐지만 실제 수량 증가는 9%에 그쳤다. 더 많은 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 비싼 병이 들어온 것이다. 세금이 올라도 베트남 소비자들이 더 좋은 술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① 세금이 올랐는데 왜 수입이 늘었는가 - 특별소비세법의 역설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가 특별소비세법 제66/2025/QH15호를 통과시켰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도수 20% 이상 주류와 맥주에 붙는 세금이 65%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1년에 90%가 된다. 와인(도수 20% 미만)은 35%에서 2026년에 50%로 오른 뒤 2030년에 70%로 올라간다. 세금이 오르면 수입 주류 소비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유가 있다. 세금 인상 전 선제 수입이 일어났다. 수입업자들이 2026년 1월 시행 이전에 재고를 미리 쌓아두려 했다. 그리고 베트남 소비자들이 세금이 올라가면 더 싼 술보다 더 좋은 술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차피 비쌀 거라면 좋은 것을 마시겠다"는 심리다. 이것이 프리미엄 소비 역설이다. 세금이 올라 가격이 오르는데 저가 수입주가 아니라 고가 와인•위스키 수요가 늘어났다.

② 카테고리별 분석 - 와인 • 위스키 • 맥주 각각의 이야기

와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다. 수입 와인이 베트남 전체 와인 시장의 75%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 40% 성장이지만 수량 기준 9% 성장이다. 1병당 평균 수입 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가 보르도•부르고뉴•이탈리아 와인 수요가 늘고 있다. 하노이•호찌민시 고급 레스토랑•와인 바 수요와 기업 선물 수요가 동시에 늘었다.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유럽산 와인 관세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2030년에는 0이 된다. 세금이 오르지만 관세가 내려가는 상쇄 효과가 있다.

위스키가 가장 역동적인 프리미엄 시장이다. 2024년 위스키 시장이 3억5,880만 달러(한화 약 4,774억 원)에 달한다. 영국 스카치•일본 위스키•미국 버번이 3대 수입 원산지다. 연간 수입액이 3,000만~4,000만 달러 수준이다. 호찌민시•하노이의 고급 위스키 바와 클럽이 늘면서 위스키가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흥미롭게도 베트남 최초의 자체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베드디(Ve De Di)"도 등장했다. 위스키가 더 이상 순수 수입품이 아닌 시대가 열린 것이다. 맥주 시장은 45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로 단연 가장 크다. 사베코(사이공 맥주•타이거)가 점유율 55%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리미엄 맥주(개당 5달러 이상)가 전체 맥주 매출의 35%를 차지하며 2020년 28%에서 올랐다.

③ 한국 주류 브랜드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가

한국산 음료•주류의 베트남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세이크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베트남 음료•주류•식초 수출액이 2026년 8월 341만8,000달러(한화 약 45억 원)를 기록했다. 7월 196만6,000달러에서 한 달 만에 74% 급증했다. 소주가 가장 앞서 있다. 참이슬•처음처럼•진로가 한인 마트를 넘어 베트남 편의점•슈퍼마켓•온라인 채널에 진출했다. 한국 드라마•영화에서 소주 마시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베트남 2030세대에게 "한국 분위기를 마시는 술"로 포지셔닝됐다.

막걸리도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이 건강•천연 원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낮은 도수•유산균•쌀 기반이라는 막걸리의 특성이 강점이 될 수 있다. 과일 막걸리(딸기•망고•복숭아 맛)가 베트남 젊은 여성 소비자들에게 잘 맞는 포지션이다. 한국 프리미엄 맥주도 기회가 있다. 하이트진로•오비맥주가 베트남에서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한국산 맥주 관세가 2029년 0이 된다.

④ 세금 • 관세 • 자유무역협정 - 복잡하게 움직이는 시장 구조

베트남 수입 주류 시장은 세금•관세•자유무역협정이 동시에 작동한다. 특별소비세는 오르지만 유럽연합•호주•칠레•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원산지 제품의 수입 관세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내려간다. 유럽산 와인은 2030년 관세 0%•유럽산 맥주는 같은 해 관세 0%가 된다. 이 구조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나라의 제품이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2022년 발효됐다. 한국 주류 브랜드들이 이 관세 혜택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 편집부 평가

세금이 오르면 소비가 준다는 공식이 베트남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더 비싼 술로 이동하는 프리미엄 소비 역설이 수입 주류에서도 확인됐다.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두꺼워질수록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다. 한국 소주•막걸리•프리미엄 맥주가 "K–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자리잡을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불닭볶음면이 문화로 들어갔듯 소주도 문화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 Q&Me/JeanCharlesSubstack "Vietnam alcohol import trend 2026: USD56.7M Jan-Aug +51% value; wine +40% value +9% volume gap reflects premiumisation or price mix shift; customs ≠ consumer sales" (2026.10.11) • WineIntelligence "imported wine 75% market share 2022 +38.24% 2023 +53.52% SCT 35%→50%→70%" • TheShiv "whisky Vietnam USD358.8M 2024 IMARC; USD30-40M imports UK Japan US Thailand; Ve De Di first local single malt" • VietnamSpot "SCT Law 66/2025/QH15 Jan 1 2026 spirits beer 65%→90% by 2031; wine 35%→50%→70% 2026-2030" • CEIC/Saike "Korea→Vietnam beverages spirits vinegar export USD3.418M Aug 2026 +74% MoM" • ZipDo/WifiTalents "beer market USD4.5B premium 35% revenue 2023 vs 28% 2020 Sabeco 55% share" • SourceofAsia "EVFTA wine tariff zero 2030 beer zero 2030 SCT separate" • CPTPP "Korea beer tariff zero 2029 VKFTA AKFTA beer spirits preferential"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 만나는 맛, 크메르족의 발효와 코코넛

베트남 크메르족 131만9,652명•발효 생선 소스•코코넛 기반 요리•찹쌀 문화

베트남 지도 최남단 메콩 델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쏙짱 • 짜빈 • 끼엔지앙성 일대에 다른 빛깔의 문화가 존재한다. 황금빛 탑이 솟은 크메르 사원(왓)이 논밭 사이에 서 있고 아침 시장에는 베트남어와 크메르어가 뒤섞인다. 이곳에 사는 크메르족은 캄보디아 크메르인과 같은 뿌리이지만 수백 년 동안 베트남 메콩 델타에 정착하며 독자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다. 베트남 통계청 201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크메르족은 131만9,652명이다. 캄보디아 • 태국 • 베트남 세 문화의 맛이 메콩강 삼각주 위에서 하나의 밥상이 됐다.

① 메콩 델타의 크메르족 - 숫자로 보는 현재

크메르족(베트남명 크메르크롬)은 베트남 54개 소수민족 중 5번째로 큰 집단이다. 131만9,652명이 베트남에 살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메콩 델타에 집중돼 있다. 쏙짱성에 36만2,029명(전체 크메르족의 27.43%•쏙짱 전체 인구의 30.18%)으로 가장 많다. 짜빈성에 31만8,231명(24.11%•짜빈 전체 인구의 31.53%)•끼엔지앙성에 21만1,282명(16.01%)이 산다. 두 개 성에서만 전체 크메르족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크메르족은 테라바다 불교를 믿는다. 베트남 낀족이 대승 불교를 믿는 것과 다르다. 마을마다 황금 탑이 있는 크메르 사원(왓)이 공동체의 중심이다. 중요한 명절이 두 가지다. 크메르 새해인 쫄츠남(4월)과 달 감사 명절 분은따(음력 10월)다. 이 명절에 크메르족 특유의 음식들이 가장 풍성하게 차려진다. 크메르족 음식 문화의 뿌리는 캄보디아지만 수백 년의 메콩 델타 생활이 베트남•중국계 화교 영향을 더해 독특한 혼합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

② 크메르 밥상의 세 가지 원칙

크메르 밥상의 특성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발효 소스가 모든 요리의 기반이다. 캄보디아 전통 발효 생선 소스 프라혹은 베트남 크메르 요리의 핵심 조미료다. 베트남 낀족 요리가 생선 소스(느억맘)를 쓰는 것과 달리 크메르 요리는 발효 정도가 더 강한 프라혹을 기본으로 한다. 처음에는 강렬한 발효 향이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다른 소스로 대체할 수 없는 깊고 독특한 감칠맛이 있다.

둘째, 코코넛 밀크가 든든한 조연이다. 크메르 요리는 코코넛 밀크•코코넛 오일•타노트(팜야자 설탕)를 광범위하게 쓴다. 메콩 델타에서 자라는 팜야자 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타노트 설탕은 크메르족 요리와 디저트에 독특한 캐러멜 향을 더한다. 셋째, 찹쌀이 주식이다. 베트남 낀족이 일반 백미를 주식으로 하는 데 반해 크메르족은 찹쌀을 더 자주 먹는다. 명절이면 색색의 찹쌀 음식이 가득 차려진다.

③ 크메르족 밥상에서 반드시 먹어야 할 것들

분느억레오는 크메르족 음식 중 베트남 전체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다. 짜빈성이 원조이고 쏙짱성 버전이 가장 유명하다. 쌀국수에 갈아낸 생선과 향신료로 만든 국물을 붓고 새우•돼지고기•콩나물•허브를 가득 얹는다. 베트남 어디서나 파는 분국수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발효 생선 국물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





분맘은 크메르족 전통 발효 생선 국물 국수다. 각종 발효 생선 소스를 진하게 끓인 국물에 쌀국수•새우•오징어•메기•돼지고기와 열 가지 이상의 채소가 들어간다. 반공은 쏙짱성 미수옌군이 원산지인 크메르족 새우 튀김이다. 쌀가루 반죽에 녹두•새우•돼지 다짐육•샬롯을 넣고 국자 모양 틀에 담아 바삭하게 튀긴다. 크메르어로 놈껌퐁이라고도 한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이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다.

쏘이마우는 크메르족 5색 찹쌀밥이다. 자연 재료로 물들인 다섯 가지 색깔의 찹쌀이 한 그릇에 담긴다. 빨강(마짱 열매)•노랑(강황)•초록(판단 잎)•보라(나비완두 꽃)•흰색이 섞여 명절 아침 식탁을 화려하게 만든다. 낫따끔쿵은 짜빈성 크메르족의 코코넛 찹쌀 떡이다. 찹쌀•코코넛 밀크•타노트 설탕을 섞어 바나나 잎에 싸서 찐다. 코코넛과 팜야자 설탕의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④ 한국인을 위한 실용 안내

쏙짱•짜빈성은 호찌민시에서 각각 약 230~240킬로미터 거리다. 버스로 3~4시간•자동차로 약 3시간 내외다. 쏙짱성 수도 쏙짱시 시내에 분느억레오•반공•분맘을 파는 식당이 밀집해 있다. 쏙짱 시장과 아침 시장이 크메르 음식 체험의 최적지다. 짜빈성에서는 짜빈 시장 주변과 크메르 사원 인근 식당들이 전통 음식을 낸다.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은 반공이다. 새우 튀김 반죽에 녹두가 들어가 고소하고 바삭하다. 쏘이마우도 색깔이 예쁘고 맛이 달콤해 부담이 없다. 분느억레오는 첫 방문자에게 발효 향이 낯설 수 있다. 한두 숟갈 맛본 뒤 입맛에 맞으면 더 시키는 방식이 좋다. 쏙짱•짜빈 방문은 메콩 델타 껀터와 하루 더 연결해 2박3일 코스로 꾸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출처: Wikipedia "Khmer Krom 2019 census 1,319,652 Soc Trang 362,029 27.43% 30.18% Tra Vinh 318,231 24.11% 31.53% Kien Giang 211,282 16.01% 5th largest minority Theravada Buddhism Chol Chnam Ok Om Bok" • ExoticVoyages/SaigonLocalTour/SinhCafe "Bun Nuoc Leo Khmer fermented fish specialty Tra Vinh Soc Trang Ca Ba stall Tra Vinh market" • Wikipedia "Banh Cong fried shrimp cake Khmer Krom My Xuyen Soc Trang rice flour mung beans shrimps Nom Kampong" • NhanDan "Khmer ethnic minority sticky rice Tuksamlo fermented fish soup Soc Trang Tra Vinh Theravada temple Chol Chnam Ok Om Bok ceramic Ca Rang Ca Om" • VietnamOnline "Bun Mam traditional Khmer dish fermented fish broth shrimp squid catfish pork 10+ vegetables" • VietJet "Bun Nuoc Leo cultural blend Khmer Vietnamese Chinese Mekong Delta specialty"]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　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　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 ONESERVICE1